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국제유가 변동 요인 비교 및 시사점

허 인 국제경제실 국제금융팀 연구위원 (ihuh@kiep.go.kr, Tel: 3460-1183)

강은정 국제경제실 국제금융팀 연구원 (ejkang@kiep.go.kr, Tel: 3460-1187)

차 례 ● ● ●

1. 최근의 국제유가 동향
2. 최근 유가변동의 원인과 2008년과의 차이점
3. 결론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 ▶ 최근 유로 재정위기 확대, 세계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하락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하락폭이 크지 않아 이 글에서는 국제유가 변동요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함.
 - 특히 최근 유종간 격차가 역전되고 그 차이가 확대되는 등 지역간 국제유가 차이도 커지고 있음.
- ▶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로 세계 석유수요가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2008년에 비해 높은 성장률이 유지되고 있으며, 신흥국을 중심으로 원유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폭이 원유생산 감소폭보다 커 초과공급 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원유수요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MENA 지역의 정정불안으로 공급증가폭이 수요증가폭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MENA 지역의 정정불안으로 인한 공급위축이 지역적으로 차별적인 영향을 주어 두바이 유가가 WTI 유가를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 2008년에는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하였으며, 최근 세계경기 침체 우려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8년에 비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임.
- ▶ 따라서 세계 원유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유가 또한 이전과 같은 급락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세계 원유공급은 비OPEC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이나 수요증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신흥국의 재고확보 노력은 지속될 것이며, 중동 산유국의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고유가 선호 현상도 유가하락폭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다만 당분간 미국과 유럽발(發) 불확실성이 유가변동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임.
- ▶ 우리나라는 석유의존도가 높아 무역수지, 물가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향후 원유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 경우 무역수지 흑자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상반기 중 유가 폭등으로 물가상승폭이 컸으나, 최근 유가변동폭이 크지 않아 영향력이 축소됨.
- ▶ 고유가 지속에 대비하여 경제·산업구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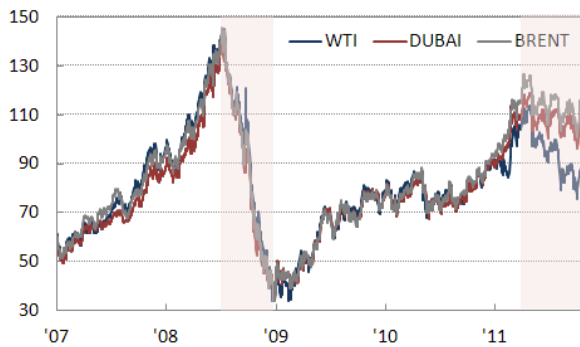
1. 최근의 국제유가 동향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락하였던 국제유가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세계경제 침체 우려로 다시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08년 국제유가는 140달러를 상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기 침체로 확산되면서 연말에 30달러 수준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2010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지난해 말에 대두된 MENA(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지정학적 위협으로 인해 올해 4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선진국발 재정위기로 100달러(두바이유가)를 하회하였음.

그림 1. 국제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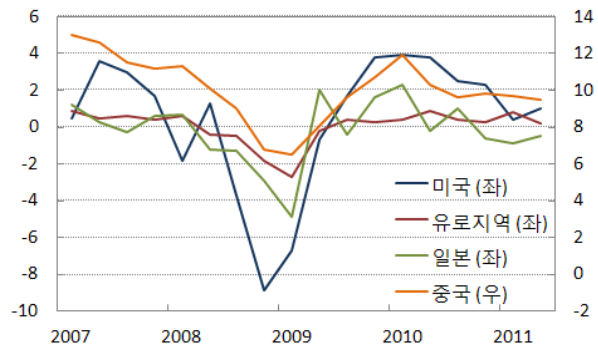
(단위: \$/b)



주: 음영부분은 국제유가 하락기.
자료: Bloomberg.

그림 2.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주: 계절변동조정, 전기대비.
자료: 한국은행(BOK).

표 1. 유가 하락률 비교

(단위: \$/b)

유종	2008년 하락기(2008년 7~12월)				2011년 하락기(2011년 4~10월)			
	최고치	최저치	하락률	평균 ¹⁾	최고치	최저치	하락률	평균 ¹⁾
WTI	145.29	33.87	-77%	99.75	113.93	75.67	-34%	94.98
Dubai	141.33	34.66	-75%	93.67	118.98	96.03	-19%	105.78
Brent	145.66	34.04	-77%	97.67	126.74	101.07	-20%	111.41

주: 1) 연중평균.
자료: Bloomberg.

■ 최근의 하락폭은 2008년에 비해 제한적이며, 이러한 하락세에도 유종간 격차가 역전되고 그 차이가 확대되고 있어 본고에서는 유가의 변동요인이 2008년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함.

-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와 주요국의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세계경제 둔화가 우려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가하락폭은 2008년에 비해 제한적임.

- 또한 2008년에는 유종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WTI유보다 더 품질이 낮은 두바이(Dubai), 브렌트(Brent)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스프레드가 역전되고,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2008년과 최근의 유가변동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① 원유수요 ② 원유공급 ③ 금융요인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국제유가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2. 최근 유가변동의 원인과 2008년과의 차이점

가. 원유수요

■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로 세계 원유수요가 감소하였음.

- 2008년에 선진국은 주택경기 부진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본격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섰으며, 신흥국 역시 높은 인플레이션과 선진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음.
- 이처럼 미 금융위기의 여파가 세계경기 침체로 확산되면서 세계 원유수요가 둔화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락하였음.

표 2. 세계경제 성장률

분류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세계	5.4	2.8	-0.7	5.1	4.0
선진국	2.8	0.1	-3.7	3.1	1.6
신흥개도국	8.9	6.0	2.8	7.3	6.4

주: 2011년은 전망치.

자료: IMF(2011. 9),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IMF W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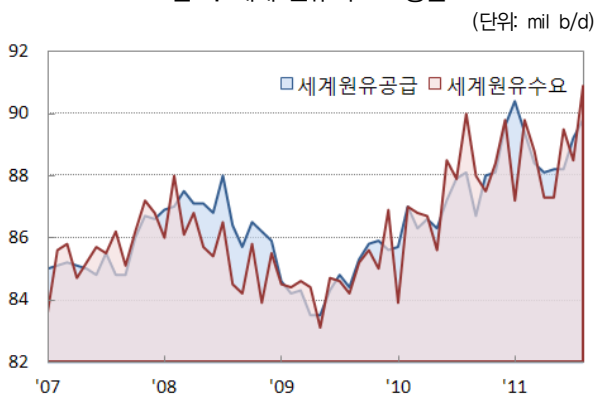
표 3. 세계 원유수요 증가율

분류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세계	1.36	0.22	-1.66	3.14	1.48
OECD	-0.45	-2.32	-4.84	0.80	-0.43
비OECD	3.87	3.63	2.34	5.88	3.58

주: 전년대비, 2011년은 IEA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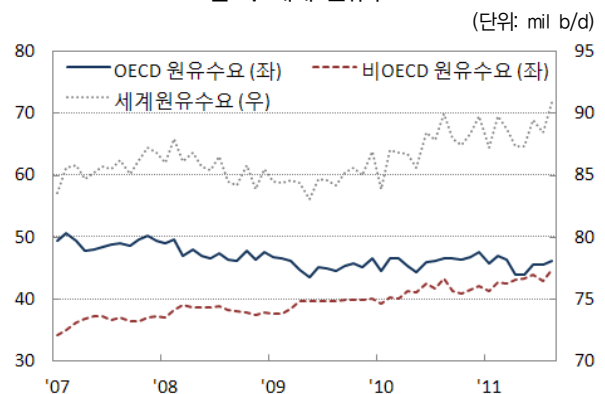
자료: Oil Market Intelligence, IEA Medium-Term Oil and Gas Markets 2011.

그림 3. 세계 원유 수요·공급



자료: Bloomberg.

그림 4. 세계 원유수요



자료: Bloomberg.

- 그러나 최근에는 2008년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원유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세계경제가 2008년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수요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2008년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되었음.
- 2008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8%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 5.1%(실적치), 2011년에 4% 수준(IMF WEO 9월 전망치)의 성장이 예상되는 등 이전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원유수요도 증가함.
- 2008년 국제유가가 75%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반면, 2011년에 19%로 하락폭이 축소된 것은 이러한 수요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임(표 1 참고, 두바이 기준).
- 특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비OECD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원유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미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유수요는 감소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신흥국은 7% 수준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세계 원유수요에서 점차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글로벌 수요증가를 견인하고 있음.
- ※ 세계 원유소비 중 비OECD 국가의 비중은 2007년 40.5%에서 2010년 약 47.2%로 계속 늘어나고 있음.

나. 원유공급

- 2008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가 원유생산 감소폭보다 커 초과공급 상태를 보였음.
- 최근에는 세계 원유수요 증가추세에 따라 생산도 증가하였으나 MENA 지역의 정정불안으로 인해 공급증가폭이 수요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세계 수요증가에 따라 증산이 이루어졌으나 수요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여 수급여건은 오히려 악화되었음(그림 3 참고).
- 2010년 말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을 시작으로 민주화 시위가 MENA 지역에 확산되었으며, 중동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하였음.

표 4. 시기별 세계 원유수급 추이와 전망

(단위: mil b/d)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요(A)	86.0	86.2	85.0	88.2	89.3	90.7
비 OPEC 공급(B)	49.7	50.7	51.7	52.6	52.8	53.8
OPEC NGLs(C)	4.8	4.5	4.8	5.3	5.9	6.3
對OPEC수요(A-B-C)	31.5	31.0	28.5	30.3	30.6	30.6
OPEC 공급(원유)	31.1	31.2	28.7	29.5	—	—
공급(D)	85.6	86.4	85.2	87.4	—	—
재고변동(D-A)	-0.4	0.2	0.2	-0.8	—	—

주: 반올림 차이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IEA 석유시장보고서

- 튀니지에 이어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가야하면서 30여 년간 지속된 독재정권이 종결되었음. 민주화 시위가 주변국으로 전이되면서 중동 지역의 정정불안은 더욱 심화되었음.
- 특히 리비아에서는 내전으로 인해 해외기업이 조업을 중단하면서 수출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석유터미널과 송유관의 피해 등으로 원유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음.
- 중동 불안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가 유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 MENA 지역의 정정불안으로 인한 공급위축은 지역적으로 차별적인 영향을 주어 두바이 유가가 WTI 유가를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가장 대표적인 벤치마크 유종인 WTI유는 저유황 경질유(Sweet, Light)로 다른 유종보다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해왔음.
- 벤치마크 유종에는 WTI, 두바이, 브렌트 원유 세 가지가 있으며, 이 중 WTI유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시장인 미국의 선물거래소(NYMEX)에 상장된 대표적인 유종으로 국제 원유가격 형성에 중심이 되어왔음.
- WTI유는 다른 유종보다 정제설비 고도화의 부담을 줄여 그동안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왔음.
- ※ 원유는 불순물 함유량과 황(Sulfur) 함유량에 따라 Light-Medium-Heavy, Sweet-Sour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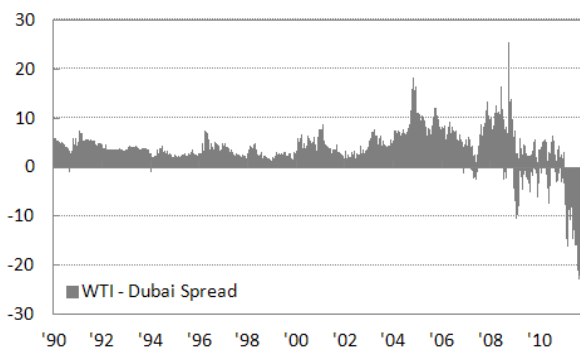
표 5. 세 가지 대표 유종 현황

	WTI	두바이(Dubai)	브렌트(Brent)
생산지역	미국(텍사스)	중동(아랍에미리트)	북해(영국)
성질	저유황 경질유	고유황 중질유	저유황 경질유
생산량	약 30만b/d	약 6만b/d	약 16만b/d
특징	· 미국 및 미주권역 가격지표 · 국외수출 금지 · NYMEX에 상장되어 선물거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거래비중 증가	· 중동 원유거래의 가격지표 · 현물과 선도시장에서 거래 · 최근 생산량 감소로 기준유종 기능이 점차 약화됨	· 유럽과 국제원유 거래의 가격지표 · 거래유동성 풍부
거래형태	선물, 현물	현물, 선도	선물, 현물, 선도, 스왑

자료: 한국석유공사(KNOC).

그림 5. WTI-두바이 유종 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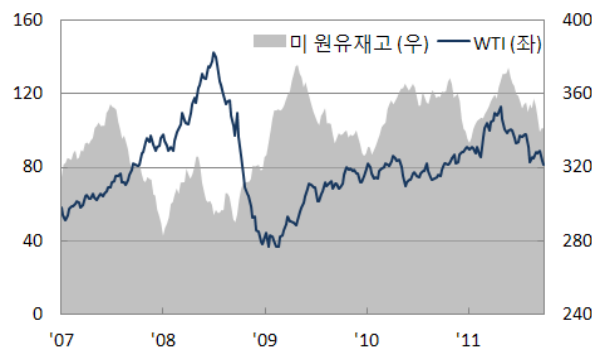
(단위: \$/b)



자료: Bloomberg.

그림 6. WTI 유가와 미 원유재고

(단위: \$/b, mil b/d)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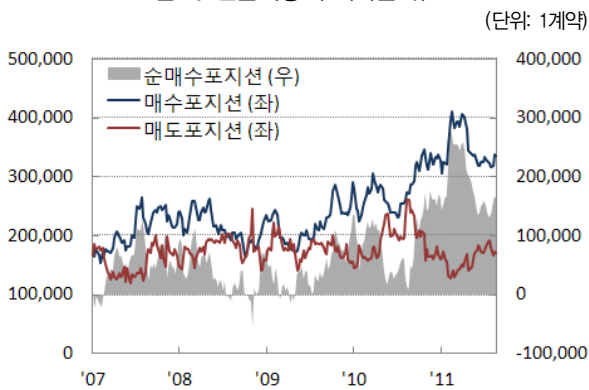
- 그러나 최근 MENA 지역의 공급차질에 따라 두바이유와 브렌트유의 가격은 강세를 보인 반면, 풍부한 재고를 지닌 WTI유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유지해 기존의 유종 간 스프레드가 역전되어 나타남.
- o 두바이유에 대한 아시아 지역의 수요증가 지속과 MENA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은 두바이유의 강세요인으로 작용함.
- o 또한 리비아의 공급차질, 북해지역의 생산량 감소 등이 브렌트유 강세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 리비아의 석유 생산량은 160만b/d(2010년 기준)로 생산량의 대부분(93%)이 저유항 경질유이며, 석유 수출량은 120만b/d로 이 중 85%를 유럽 국가가 차지하고 있음.
- o 이에 반해 국외 수출이 금지되어 있어 차익거래가 거의 불가능한 WTI는 인도지역인 미 오클라호마(Oklahoma) 주 쿠싱(Cushing) 지역의 풍부한 재고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유종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음.
- 중동 불안에 따른 두바이유의 강세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음.
- o 우리나라의 경우 운송거리와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인 중동에서의 원유 수입비중이 높아(중동 의존도 81.8%, 2010년 기준) 두바이유의 강세가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함.

다. 금융요인

■ 2008년에는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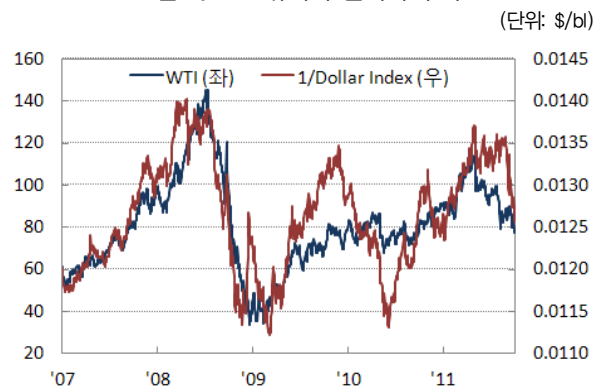
- 금융위기의 여파로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확대되고,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으며, 이는 상품시장의 투자자금 이탈을 초래하였음.

그림 7. 선물시장 투자자금 규모



주: 옵션 미포함 비상업적 거래 포지션, 1계약=1,000배럴.
자료: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그림 8. WTI 유가와 달러의 추이



주: 1/Dollar Index=달러인덱스의 역수.
자료: 국제금융센터(KCIF).

■ 최근 세계경기 침체 우려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8년에 비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최근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와 미국 등 전 세계에서 경제둔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원유시장으로의 자금유

입이 감소하였으나 2008년에 비해서 여전히 투기자금의 규모가 큼.

- 세계경기 침체 우려로 최근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폭이 2008년에 비해 크지 않고, 달러 강세가 최근의 유가하락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o 2008년 하락기에 유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던 달러의 영향력은 최근 들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 6. 유가와 달러 간의 상관관계

	WTI 유가 - 달러	두바이 유가 - 달러
2008년 하락기(2008년 7~12월)	-0.92	-0.93
2011년 하락기(2011년 4~10월)	-0.56	-0.50

주: WTI, Dubai, Dollar Index.

자료: 국제금융센터(KCIF).

3. 결론 및 시사점

가. 국제유가 전망

- 세계 원유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제유가는 이전과 같은 급락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 우려가 있으나 세계 원유수요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o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주요 기관들의 세계경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으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보다는 양호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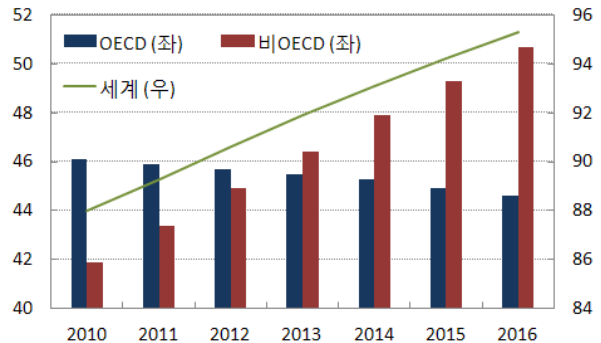
표 7.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세계	5.4	2.8	△0.7	5.1	4.0	4.0
선진국	2.8	0.1	△3.7	3.1	1.6	1.9
미국	1.9	△0.3	△3.5	3.0	1.5	1.8
유로지역	3.0	0.4	△4.3	1.8	1.6	1.1
일본	2.4	△1.2	△6.3	4.0	△0.5	2.3
신흥국	8.9	6.0	2.8	7.3	6.4	6.1
중국	14.2	9.6	9.2	10.3	9.5	9.0
한국	5.1	2.3	0.3	6.2	4.0	4.4

그림 9. 세계 원유수요 전망

(단위: mil b/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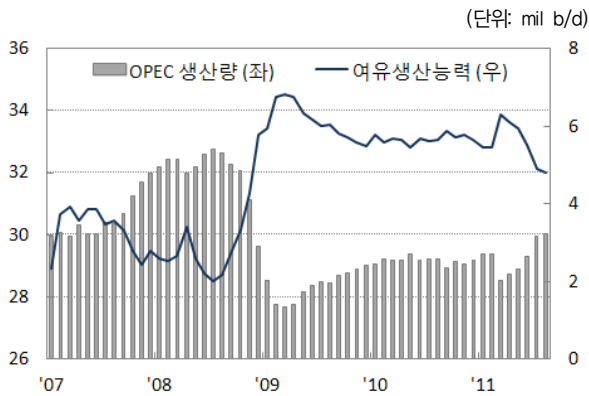
자료: IMF(2011. 9),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IMF WEO). 자료: IEA Medium-Term Oil and Gas Markets 2011.

- 특히 선진국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인도 등 신흥국이 세계 원유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 선진국은 재정긴축 및 경기부양 여력이 소진됨에 따라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수요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신흥국은 선진국의 경기둔화와 과열 우려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요도 증가할 것임.
- 미 에너지정보청(EIA)의 에너지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5년 세계 에너지 소비는 2008년 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특히 중국 및 인도가 세계 에너지 소비증가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원유공급은 비OPEC 국가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이나 수요증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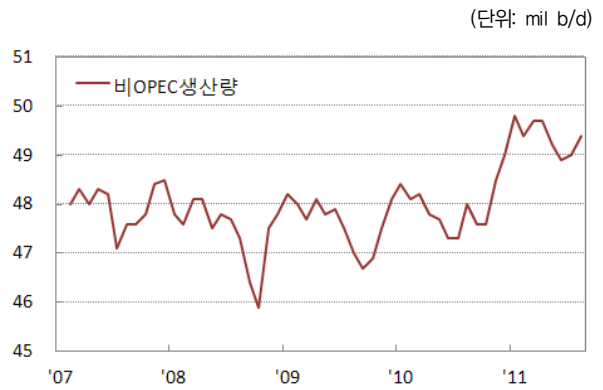
- 미 에너지정보청은 브라질,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카자흐스탄, 미국 등 비OPEC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원유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리비아의 생산재개로 OPEC이 감소에 나서면 유가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OPEC은 조만간 리비아 동부 및 서부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량이 50만~60만b/d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리비아의 생산차질은 2013년에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유로존 위기와 미국의 높은 실업률로 전 세계 석유수요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OPEC 회원국은 그동안 리비아의 원유생산 차질을 충당하기 위해 증산하였던 부분을 리비아의 생산재개를 이유로 축소하겠다고 밝힘(9월 20일).
- OPEC의 여유생산능력(spare capacity)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유가상승 시 상승폭 증가요인이 될 수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OPEC의 여유생산능력이 2011년에 315만 배럴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며, 2013년에는 평균 400만 배럴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함.
- 현재 OPEC의 여유생산능력은 IEA의 권고치(300만b/d)를 상회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여유생산능력이 감소한다면 공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음.

그림 10. OPEC의 생산량·여유생산능력



자료: Bloomberg.

그림 11. 비OPEC의 생산량



자료: Bloomberg.

■ 고유가 기조가 예상되어 신흥국의 재고확보 노력이 지속될 것이며, 중동 산유국의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고유가 선호 현상도 유가하락폭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최근 전략비축유를 방출한 IEA 회원국과 전략비축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중국과 인도가 유가하락 시 재고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
- 중동 산유국이 MENA 사태에 따른 사회안정을 위해 지출한 복지예산을 원유가격에 반영할 경우 두바이유 가격은 상승할 수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2010년 GDP의 21%에 해당하는 1,239억 달러 정도의 대규모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등 중동 국가들이 복지예산을 늘리고 있음.

■ 당분간 미국과 유럽발 불확실성은 유가변동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임.

- 유로존의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EFSF 확충안이 통과되는 등 국가간 공조가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기 지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유럽과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향후 유가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는 석유의존도가 높아 유가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큼.

- 우리나라는 수입의 대부분을 원자재가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이 주요 수출품목임.
- 유가상승은 대(對)산유국 수출과 석유제품 수출을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원유수입 증대 등에 따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함.

표 8. 주요 품목별 수출입

(단위: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비중	증가율	품목명	비중	증가율
1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1.2	31.3	원유	18.9	49.5
2	석유제품	9.3	75.8	반도체	6.2	8.4
3	반도체	8.9	-0.3	석유제품	4.4	25.7
4	자동차	7.8	27.8	천연가스	4.0	27.9
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5.5	-6.7	석탄	3.4	41.4

주: 2011년 1~8월 누적,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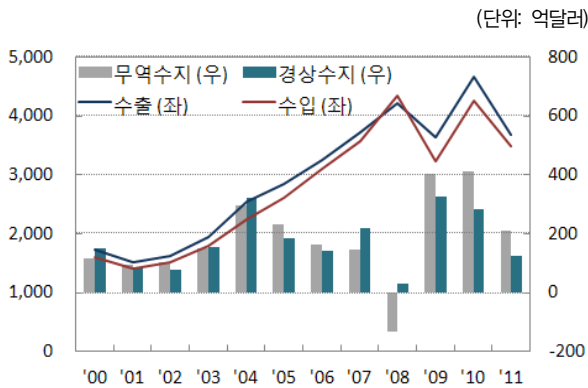
■ 2008년에는 수출에 비해 수입증가폭이 확대되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 우리나라는 2008년에 수출이 13.6%(전년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폭이 22%로 확대되어 무역수지는 13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음.
-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원자재 수입이 사상최고치(36%)를 기록하였음.
- 석유제품과 선박류의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가전, 자동차, 반도체 등의 품목에 대한 해외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증가폭이 둔화되었음.

■ 따라서 향후 원유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무역수지 흑자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올해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수입이 확대되었으나 석유제품, 선박,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면서 무역수지가 210억 달러 흑자(2011년 8월 누적)를 기록하고 있음.
-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이 감소하고, 원자재 가격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수입이 증가하게 되어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OECD 선행지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세계경기 침체가 우리나라 수출감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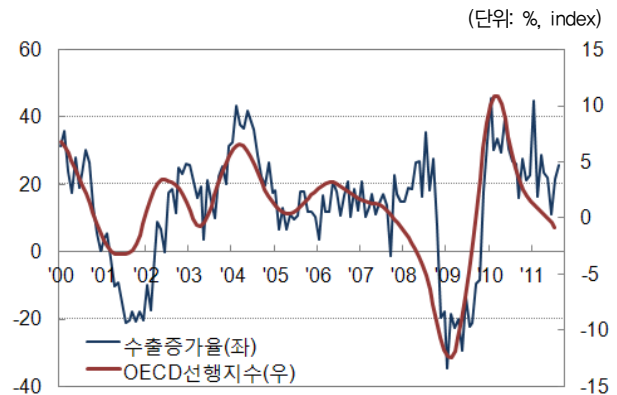
그림 12. 우리나라 수출입 추이



주: 2011년 1~8월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한국은행.

그림 13. 수출증가율과 OECD 선행지수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표 9. 우리나라 원유수입 및 석유제품수출 추이

	원유수입			석유제품 수출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07년	873	592	67.86	292	234	80.28
2008년	865	829	95.82	334	370	111
2009년	835	495	59.30	331	226	68.21
2010년	872	673	77.12	342	299	87.48
2011년 1~8월	610	643	105.43	267	321	120.15

자료: 한국석유공사.

표 10. 유가상승이 수출입에 미친 영향

(단위: 백만 배럴, 억 달러, 달러/배럴)

	원유 수입			석유제품 수출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07년	873	592	67.86	292	234	80.28
2008년	865	829	95.82	334	370	111
차이		237	27.96		135	30.72
2010년	872	673	77.12	342	299	87.48
2011년	872*	920	105.43	342*	411	120.15
차이		247	28.31		112	32.67

주: *2010년 수출입 물량

자료: 한국석유공사.

- 원유수입과 석유제품의 수출만을 고려했을 때 2008년의 유가상승은 무역수지를 2007년에 비해 약 11조 원 감소시켰음.
- o 2008년 약 28달러(전년대비)의 유가상승은 우리나라 원유수입을 237억 달러 증가시키고, 석유제품 수출은 135억 달러 증가시켰음.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약 11조 원(연평균 환율 적용) 감소하였음.
-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무역수지 흑자폭이 지난해에 비해 약 15조 원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o 올해 유가상승으로 인한 원유수입은 247억 달러, 석유제품 수출은 11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수출입 물량은 지난해와 동일하고, 도입단가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 따라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지난해보다 약 15조 원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표 11. 유가상승이 무역수지에 미친 영향

(단위: 억 달러)

	2008년	2011년
(수출) 석유제품	135	112
(수입) 원유	237	247
(순수출)	△101(△11,18조원)	△135(△14.78조원)

주: 필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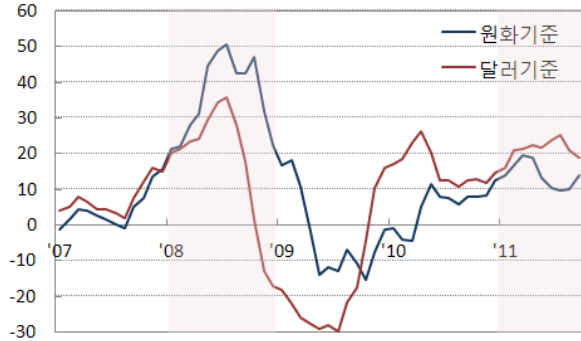
자료: 한국석유공사; 한국은행.

■ 유가가 물가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2008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유가급등으로 인해 2008년에는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4.7%(전년대비)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물가불안이 고조되었음.
- 물가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상승이 미치는 영향은 2008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o 2011년 상반기까지 원자재 가격상승이 물가상승을 전인하였으나 2008년에 비해 상승세가 낮으며, 최근 원자재 가격 하향조정으로 물가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음.
- o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동안 원자재 가격상승에 기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임.

그림 14. 수입물가 상승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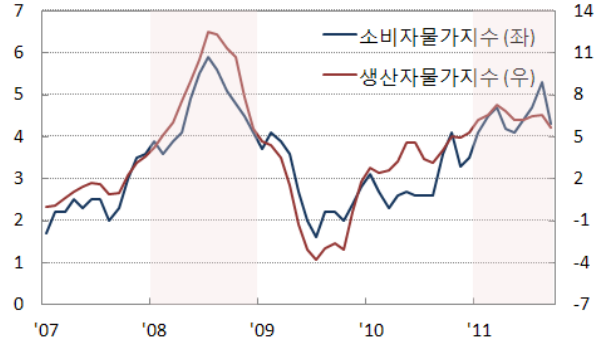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그림 15. 소비자·생산자 물가상승률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다. 시사점

■ 고유가 지속에 대비하여 경제·산업구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해야 함.

-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제유가 변동에 매우 민감하므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제·산업구조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함.
- IEA에 따르면 2030년 유가가 180달러(IEA 원유도입단가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으로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본격적으로 고유가 경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 따라서 우선적으로 화석연료 소비를 줄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을 가속화해야 함.
- 또한 우리나라의 높은 중동 의존도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수입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며, 자원개발 협력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켜야 함. **KIEP**